

또... 여고생 자살

광주서 울들어 4명... 치유 대책 시급

개학 첫날 광주지역 한 여고생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울들어 광주에서만 4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최근 5년간 합하면 43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 불화와 우울증, 나쁜 성적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오전 10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여고생 A(16·고1) 양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개학 첫날인 이날 등교를 하지 않아 담임교사가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A양을 찾으러 나선 가족들이 건물 옥상에서 목매 숨져 있는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학기 초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우울증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와 관심군에 속했으며, 최근 상담교사와 친구들에게 성적에 대해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학교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광주지역에서 자살한 청소년은 모두 43명에 달했다.

2009년 14명에서 2010년 6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1년 10명, 2012년 9명으로 다시 늘었다. 울들어서도 벌써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중 남학생이 23명, 여학생이 20명이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생이 29명으로 3분의2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3년사이 고등학교생의 자살이 급증했다. 2011년 10명 중 8명, 2012년 9명 중 8명, 울들어 4명 중 3명이 고교생이다.

지난해 자살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정불화와 이성 문제가 각각 3명, 우울증·신변비판·성적문제 등으로 삼을 포기했다.

인민서 의원은 "아이들을 베풀 줄 것으로 내모는 주된 원인이 가정애 있다"며 "아이들이 내면의 상처를 털어 놓고 치유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열기자 jwpark@kwangju.co.kr



백상아리

완도에 '쇼스'가 나타났다

소안도 해상 5m 식인 상어

완도군 소안도 해상에서 5m 크기의 식인 상어(백상아리)가 잡혔다. 20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지

난 19일 완도군 소안면 소진리 앞 1.5마일 해상에 설치된 한모(67)씨의 멸치어장에서 5m 크기의 백상아리가 걸렸다. 완도 해역에서 멍크 고래가 포획된 적은 있지만 식인 상

어는 처음이다. 한씨는 상어와의 한 시간이 사투 끝에 붙잡은 뒤 급일수협 위관장에 내놓았지만 책정된 가격은 5만 원에 불과해 판매를 포기하고 해남군 땅갈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했다. 완도해경은 해수욕장 순찰을 강화하고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소태역 독가스터러 대비 훈련

2013 을지연습 기간인 20일, 광주 지하철 소태역에서 열린 독가스터러 대비 훈련 중 육군 503여단 대원들이 부상자를 긴급 이송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음란한 물건의 기준은?

광주지법, 성인용품점에 '물건' 전시 업주들 무죄 선고

시대가 변하면서 법원 판결도 성 개방화 세대의 영향을 받은 결과, 성인용품점에서 여성 성기 모양의 물건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업주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측은 '4대악(惡)' 실적을 위해 무리한 단속의 결과 아니냐는 비판을 우려하면서 향후 단속 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여성 성기 모양의 보조 성인용품 전시한 혐의(음란물 전시)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9)씨 등 성인용품점 업주 6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등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실리콘 재질의 전동식 모조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용품의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추보면 형법에서 금지된 '음란한 물건

공연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여성 신체 부위를 실제와 비슷하게 재현했다"는 경찰과 시가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점포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점포 밖에서 내수가 보이지 않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이 지난 2003년 5월 '음란물 건 전시'와 관련, "음란한 물건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 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모조 여성 성기를 음란한 물건으로 판단한 판례와도 온도차가 느껴진다.

반면,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속하였는데 이번 무죄 판결로 단속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① PDF 파일 전자문서 공문서로 볼 수 있다

■ 김윤석 사무총장 영장... 수사 핵심 쟁점?

② 조직적 공모를 통한 의도적인 위조였나

③ 위조행위로 인해 상당한 피해 발생했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윤석 유치위 사무총장과 6급 직원 한모(여·44)씨 등 핵심 당사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은 '진상 규명'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의 수사로 정부보증서의 위조 과정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총장 등에 대해 주요 혐의를 놓고 법원 영장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PDF 파일 전자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있을 지 여부, 조직적 공모를 통한 의도적인 위조였는지 여부, 위조 행위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제수영연맹에 제출된 것이 PDF 파일 전자문서로, 공문서가 아니라는 대법원 관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은 전자문서가 인쇄기로 출력됐을 경우 공문서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민등록증,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 유사한 공문서 위조 사건에서 컴퓨터 스캔을 통해 모니터로 출력, 이메일로 전송되는 파일은 공문서가 아니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수영연맹 사무국에 PDF 파일을 전송했고, 출력도 다시 타인에게 전송된 뒤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정적으로, 위조 정부보증서가 문제가 돼 최종본에는 진본이 들어간 믿음이

를 행사했다고 보고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직적·의도적인 위조였는지도 논란이 될 소지가 높다. 한씨는 정부보증서를 서한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국제컨설팅사의 제안을 받고 김 사무총장에게 구두보고한 뒤 국내컨설팅사를 통해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 이와는 달리 한씨의 구두보고 이외에 정식보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김 총장이 그동안 진술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시나 묵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는지가 관건이 된다. 검찰은 한씨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컨설팅사에 제안을 했는지 여부도 실체와 상반하여 영장심판에서 이변 사건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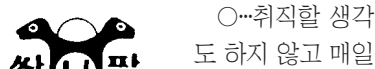


폭력에 발일 70대 숨져 장성군 삼계면

20일 낮 12시 56분께 장성군 삼계면에서 고모(77)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고씨는 이날 오전 집을 나가 인근 밭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열사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성=김홍윤기자 yongho@

혼계 증 할머니 아버지 신고한 아들



○...취직할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 컴퓨터 게임만 하던며 혼계와 함께 밤을 깨민 60대 아버지가 아들의 신고로 경찰서행.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모(65)씨는 19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A 아파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29)씨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고 뺨을 한 차례 때렸다가 아들의 신고로 입건.

○...이씨는 "취직할 나이가 됐는데 직장을 구할 생각이 없어 매일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것 같아 나무랐는데, 아들이 말대꾸를 하며 대들어가 봐가 났다"면서 "신고까지 할 줄 몰랐다"며 허탈해하는 표정.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13타경 8043	2	영광군 법성면 덕림리 산70-6 157㎡	175-6 157㎡	임야	8,420,000	일괄매각, 매각외 건물용취득목적지상권설립여지있음
2013타경 8241	1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 678 1008㎡	678 1008㎡	전	7,257,600	농지취득목적지상권
2013타경 9268	1	장성군 북일면 성산리 산4-1 6086㎡ [공유자본영역지분5분의1전부]	6086㎡	임야	3,043,000	공유자본영역지분5분의1전부
	2	동소 산6-1 20132㎡ [공유자본영역지분5분의1전부]	20132㎡	임야	8,858,080	동소 산6-1과비고내용 동일
2013타경 10497	2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산86-10 8529㎡ [현 일부모지] [소하천지속]	8529㎡	임야	66,526,200	본양을위하여법정지상권설립여지있음
2013타경 11001	1	담양군 대전면 용림리 253-8 950㎡	253-8 950㎡	답	86,95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목적지상권설립여지있음
2013타경 11278	1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685-1 1921㎡	685-1 1921㎡	전	8,452,400	농지취득목적지상권
	2	장성군 황룡면 팔림리 89-1 397㎡ [현:택지]	397㎡	전	2,866,932	일괄매각, 공유자본영역지분5분의1전부
	3	동소 산6-1 20132㎡ [현:택지] [물건번호:1:매각외건물을위한법정지상권설립여지있음, 임차인있음]	20132㎡	전	2,866,932	앞선매수권행사제한, [공유자본영역지분5분의1전부]
2013타경 11407	2	동소 산6-1 20132㎡ [현:택지]	20132㎡	답	6,935,999	농지취득목적지상권
	3	동소 산6-1 20132㎡ [현:택지]	20132㎡	답	2,582,399	농지취득목적지상권
2013타경 11766	1	화순군 능주면 석교리 17-1 1560㎡	17-1 1560㎡	전	18,720,000	농지취득목적지상권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3타경 8968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492-1 191㎡	492-1 191㎡	대	89,983,130	일괄매각, 임차인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47 95.27㎡	47 95.27㎡	대	89,983,130	근린시설
	3	광주광역시 북구 월산동 973-11 291.9㎡	973-11 291.9㎡	대	448,275,8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임차인
	4	동소 산6-1 20132㎡ [현:택지]	20132㎡	대	448,275,8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임차인
2013타경 10497	1	광주광역시 남구 금호동 440번길 3 1층 일용품소매점 133.68㎡ 2층 사무소 152.81㎡ 3층 주차 114.96㎡ 4층 주차 116.49㎡ 지하층 대충음식점 170.47㎡ 제시외 다용도실 등 19.48㎡ [공유자본영역지분57분의2전부]	440번길 3 1층 일용품소매점 133.68㎡ 2층 사무소 152.81㎡ 3층 주차 114.96㎡ 4층 주차 116.49㎡ 지하층 대충음식점 170.47㎡ 제시외 다용도실 등 19.48㎡	대	44,29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기타]						
2013타경 8043	1	영광군 법성면 덕림리 550-1 308㎡	550-1 308㎡	대	74,315,1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임차인
	2	동소 산6-1 20132㎡	20132㎡	대	74,315,1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임차인
	3	동소 산6-1 20132㎡ 제시외 창고 등 159.4㎡	20132㎡	주택	16,412,000	일부집도구역, 농 및임부목전
	4	영광군 법성면 영광로 249-32 비동종 농업기타	249-32	기타	16,412,000	지취목적지상권
	5	영광군 법성면 덕림리 550-19 83㎡ [현:창고부지]	550-19 83㎡	창고	7,800,000	농지취득목적지상권
	6	동소 산6-1 20132㎡ 제시외 창고 46㎡	20132㎡	도로	7,800,000	농지취득목적지상권
	7	동소 산6-1 20132㎡ 제시외 창고 46㎡	20132㎡	도로	7,800,000	농지취득목적지상권

2013. 8. 2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영석